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 東友會報

1990年(檀紀4323年) 5月8日 第145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盧德一  
인쇄인 張明錫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회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가장 깊은 永遠의 故鄉이여”



## 우리 故鄉중의 故鄉이여

우리 母校 東國大學校에 서는  
심청이가 印塘水에 빠져 들어가 살던  
그 연꽃 내음새가 나고

목을 베니

젖이 나 솟았다

聖 異次館의 講義소리가 들리고

慶州 石窟庵에 彫刻된 것과 같은

永遠을 사는 사람의 모양들이

講堂마다 學生들 틈에 그윽히 끼어 同行  
한다.

세계의 마지막 나라 大韓民國의

맨 마지막 靜寂과 義務속에 자리하여

가장 밝은 눈물 뜨고 있는 母校의

三世가운데서도 가장 쓰고 짜거운 한복판.

永遠속에 가장 후미진 書齋

最後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最後로 責任질 것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母校의

우리 故鄉중의 故鄉이여.

進甲의 水墨빛 僧衣를 입으신

이 크신 아버님들의

내 오늘 돌아온 鴈兒처럼 뒷門으로 스며

들면

이不老의 님은 주름살 대신에

그 이마 사이 한결 더 밝아지신 白髮의

빛에 쏘인

甘露의 靈藥사발을 우리에게 권하신다.

讚揚할 것이다.

讚揚하고 또 찬물지이다.

님께서 이루하신 眞理의 목은 받음

그 한 이량 한 이량씩은

말이선 끝없이 꽃피며 갈지로다.

未堂 徐砥柱(35中佛·시인)

# 제52차 定期理事會 6월29일 개최

## 89년豫決算·90년豫算案 심의

회장단회의 지난 3일 열려,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90년도 본회 제1차 會長團 회의가 5월 3일 오전 7시 30분 鄭在哲회장, 文泰植수석부회장, 崔敬根상임부회장등 회장단 14명이 참석함. 프라자호텔 21층 홀실에서 열려 지난해 회계보고 및 분회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결산수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1990년도 1억여원의 예산안과 장학기금, 체육기금, 운영기금원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지난해 예결산수지와 90년도 예산안은 6월 29일 열기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추진받게 된다.

이날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 발전에 대해 물심양면 협조를 아끼지 않는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달 11일 모교 재단이사회의 사에 보선된 사임을 소개하며 동창회와 재단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제3차 본회 운영위원회는 5월 26일 오후 6시 金銘善 <주> 동창회(장) 위원 자택에서 개최기로 합의했다.

東友會報 創刊14周年  
8만 동국인의 榮耀로써 誌

화와 우의의 광장으로서 조직 개하여 분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

## 東國學園 재단이사진 보강

鄭在哲회장·徐義玄총무위원장등 理事 4명

모교 재단의 새이사진 구성과 90년도 예산심의를 안건으로 재단이사회의(이사장=吳棟國스님·73행원)가 열려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보선했다.

지난 4월 1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이번 이사회는 지난 2월 21일 조계종중앙종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9인 중 徐義玄총무위원장, 徐正道회장, 裴道園구과계사주지와 鄭在哲(52정치)총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金憲法(73행원·본회지도위원) 신홍사주지, 삼지

(상임사주지) 스님이 선출됐으며 金龍模(59경제·분회상무이사·공인회계사) 김사는 유임됐다. 이번 이사회 구성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불교계와 동창회 내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이 선출되었다는 사실로, 李智賢전총장, 黃善經(69행원)前이사장등 지난해 부정입학사건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표명한 바 있는 이사 9인도 그대로 유임됐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신입재단사주처장에 김자호(금강사주지) 스님을 임명했다.

## 嶺南지구회장協議會 결성 재정자립 사업을 추진

재정난 타개와母校지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에 관한 연대적 대응을 위해 영남지역에서 최초로 各支部 동문회장의 모임인 「동대 영남지구 동창회장협의회」가 결성됐다.

경주, 대구, 울산, 포항 등 영남지역의 各支部 동문회장 8명은 지난 3월 5일 母校 경주

캠퍼스에서 모임을 갖고 同협의회를 결성한후 초대회장에 金光澤(57經濟·경주식당 중앙장) 동문을 선출하는 등 정식활동에 들어갔다.

同협의회는 앞으로 재정난타개를 위한 財源발굴과 장학기금 조성등 모교지원사업에 대해 공동협의하게 된다.

## 母校 보직교수·직원 대폭인사

金시배 부총장대행·金鎮徹 행정대학원장



김 경우 부총장

한대행으로 임명하는 등 일부 보직인사 및 식별인사들 단행됐다.

지난 3월 이후의 보직인사 이 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 ▲행정대학원장=金鎮徹(정의 78·경석)
- ▲황龍浩(회계 66·경석)
- ▲이부대학장=徐潤吉(불교 70·불석)
- ▲학생처장=趙炳實(중업경제 67·경석)
- ▲중앙도서관장=金東俊(국어교육 81·문바)
- ▲과학관장=成瑞吉(화학 68·이석)
- ▲불교문화연구원장=蔡澤洙(선학 64·불교)
- ▲교수=홍장비서실장=白宇錫(前교대대학원 교학과

- 장) <以上 3월 4일>
- ▲총무처장=成瑞吉(68·이석) <3월 26일>
- ▲기획조정실장=林瑞浩(행정학 80·정박) <4월 6일>

◇경주캠퍼스

- ▲지역개발 대학원장=金善培
- ▲인문과학대학장=慎根粹(일어일문)
- ▲자연과학대학장서리=崔相範(조경)
- ▲의과대학장겸 의대부속경주병원장=朴수성(의학)
- ▲교무처장=崔水泰(생물 77·영석)
- ▲학생처장겸 교육방송국장=崔圭誌(기초학부 66·정의)
- ▲도서관장=金錫珠(철학 68·철석)
- ▲박물관장서리=崔孝軾(국사)
- ▲외국어 교육원장=李錫長(65·영문)
- ▲교육방송국주간=洪光杓(소경)
- ▲모신소장=崔益翰(의학)
- ▲여학생장=白庚任(가정교육)
- ▲전자계산소장 서리=許正植(정보관리 73·경석)
- ▲기숙사장=林濟平(국사 69·사학)
- ▲의료원 기획관리실장서리=金鍾玉(前미서실장) <以上 3월 4

## 東友漫評 鄭雲耕



"재정참 希望"

최고년 14.26% (B급기준) 수익률 보장!

자유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3,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최신한 투자, 엄격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771-06



## 現代不動産仲介株

全國不動産仲介業協會 代議員

代表理事 副社長 金炯敏 (75경행)

대표전화 511-0781 FAX. (02) 547-5742  
강남구 신사동 618-3 뉴서울 BD B109호

## 회비... 1년에 1만원

회보제작·장학기금마련·사무국운영에 긴요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갖읍시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 속에 總同窓會는 사무전산화를 통한 동문 조직강화와 모교발전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同門여러분 스스로가 總同窓會의 주인이라는 주체 의식을 갖고 自立運營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會費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20
- 監事... 20만원
- 指導委員...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 납부안내

- ① 은행지리이용(7500891)
- ② 전화주서면 방문수납



# 鄭在哲회장, 産銀理事長 취임

## 경제활성화의 전인차 기대



鄭在哲 (52 정치) 총동창회장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산업은행 이사장에 임명됐다.

49년 전문부 문화과-52년 정치학과졸, 62년 보사부 공보관으로 官界에 몸담은 이래전대청 차장, 재무부기획 관리실장, 산업은행 부총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일은행장, 11·12대국회의원(숙초·고성), 국회외교위원, 韓-터키의원친선협회회장, 韓-日의원친선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재부위원장 및 정부장관 등 역임.

언론계·학계·금융계·정계 등 다채로운 경력의 鄭동문은 81년 본회 제11대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동문간의 유대강화와 동창회관련추진, 모교지원 등을 위해 맹활약해왔다.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등 금융계에서 관록과 공로를 쌓아온 鄭회장은 이번 임명에 있어서는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전인차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 總務處장관 李衍澤 동문



李衍澤 (61법학) 동문은 지난 4월 18일 자 개각에서 총무처 장관으로 任職했다.

계 올림픽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3년간 외근불직한 총리실을 떠나 82년 2월부터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으로 활약해왔다.

행정수석 재임시 소관업무에 대한 매끄러운 일처리와 대인관계로 소신과 능력을 인정받았고 매사에 저격적이며 겸손한 자세가 총무처장관으로 적격이라는 評.

가족으로 차기淳澤(48) 와 3남.

담당시 올림픽조직위원장과 합

## 住公理事長 李永昶 동문

李永昶 (58법학·본회의이사) 동문은 지난 4월 14일 한국 주택공사 이사장에 임명됐다.



李憲琦 (前 李憲琦) 동문은 지난 4월 26일 공적중인 주택은행 이사장에 임명됐다.



로 東國과 인연을 맺은 이래 본회와 모교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온 李동문은 철도노조국부장, 同사무국장 겸 부위원장 등을 거쳐 11대의원(전국구), 보사부차관역임하고 지난 86년 8월부터 노동부차관을 맡아 노동행정의 최고책임자로 활약한 바 있다.

## 平南도지사 金勳基 동문



金勳基 (61정치·본회의이사) 동문은 최근 平南南道 지사로 임명됐다.

8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지난 28일 오후 2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은 동화집「꽃그늘 환한물」。 센터장 겸 부장으로 재직중인 鄭동문은 지난 86년 동화집「오새암」으로 제14회 새싹문화상을 수상한 이래 「초승달과 밤배」, 「내가속스 램프」 등 각각 한 현대사회에서 유풀되어야 할 정을 추구하는 작품을 주로 써왔다.

## 新文藝협회 부회장

### 都昌會 동문

都昌會(62영문·수필가) 동문은 최근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방갈을 깨우는 마음으로」 등의 작품집을 갖고 있는 鄭동문은 모교 영문과교수로 재직한다.

## 불교아동문학상 수상

鄭塚瑋 동문은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金東甲) 제정 제

# 제4회 東國文學賞 수상 朴貞姬·宋島동문 선정

東國文學會(회장 宋媛麗)는 제 4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 시인朴貞姬(60영문) 동문과 수필가宋島(49문화) 동문을 선정, 지난 3월 9일 문예진흥원소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차

동문은 현재 한양여전교수로 재직중이며 수상작은 제 4집 「슬레의 편지」. 또, 현재 한국수필가협회사무 이사인 宋島동문은 수필 「일요이야기」로 수상했다.

## 李準鎬 동문 세계빙상 종합우승



모교 빙상부 소속 李準鎬(88 경제·경영대학원) 동문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90세계남녀소 트레빙상선수권대회 남자부에서 종합우승했다.

李동문은 4월 18일(현지시간) 열린 1전에서 1분33초46로 종전 한국신기록을 0.39초 단축하며 3위를, 3전m에서는 5분30초43으로 1위를 차지하여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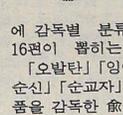
합점점 7점을 얻어 우승했다. 리라국교 1학년때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빙상과 인연을 맺은 李동문은 88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15회 동계올림픽 시합종목 3전m 금메달, 89년 동계유니버시아드 3관왕등 국내빙상의 간판스타로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3전m한국최고기록을 비공인세계최고기록(5분03초10)을 갖고있어 92년 동계올림픽에서도 확실한 메달리스트로 기대되고있다.



본인의 近況이나 주위동문의 廣소시 등이 1주 1면 정도 提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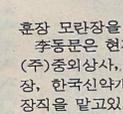
## 영화대표작

最多선정 俞賢穆 동문 俞賢穆(49문학·모교교수·본회의이사) 동문은 최근 영화진흥공사 선정 「한국영화 70년 대표작 2백선」에 감독별 분류중 가장 많은 16편이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오발탄」 「임여인간」 「성운이순신」 「순교자」 등 수준높은 작품을 감독한 俞동문은 국내영화예술진흥이 주역으로 현재 한국영화회회장, 예술원회원으로 활약중이며 본회지정(제1회) 東國文化賞을 비롯하여 대종상, 서울시문화상, 예술원상, 玉冠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 「보건의 날」 모란장서훈

李宗鎬 동문 李宗鎬(58법학·분회부회장 중의제약대교) 동문은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최고훈장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받았다. 李동문은 현재 (주)중의제약, (주)중의상사, (주)중의기계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직을 맡고있으며 국민보건의료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번 표상을 받았다. 본회 지도위원 겸 운영위원으로 모교와 본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 「호국미륵대佛」회향식

柳月麗 동문 柳月麗(68법학·본회상무이사·법주사 지주) 동문은 지난 2월 21일 상오 11시 「통일기원회」국정문화재단에서 「호국미륵대佛」회향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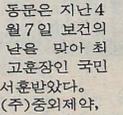
## 최주부임이후 줄곧 統一을 기원하는 미륵대불 佛事에 대달려 6년간에 준공을 본 柳동문은 이제 미륵사상의 구현을 위한 실천운동인 十善을 동을 제창하고 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孫英燮 동문 孫英燮(52정치·한국정치외교학부부회장) 동문은 5월 3일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총재로 피선되었다.

雷虛 불교학술상 蔡澤洙 동문 蔡澤洙(64법학·모교교수) 동문은 지난 4월 5일 제 8회 雷虛 불교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논문은 「신라 진표유사연구」

蔡동문은 정각원장과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신학과교수로 재직중이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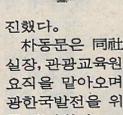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柳동문은 지난 30일 미륵대불회향을 기념하는 미륵사상국제학술세미나를 「미륵사상의 현대적조명」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徐潤吉, 洪超超, 朴先榮, 鄭明鎬 모교교수 등 사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했다.

## 관광공사개 발본부장

朴鍾在 동문 朴鍾在(59경계·본회의이사) 동문이 최근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 개발부장에서 同 본부장으로 승



## 국토개발원 연구위원

吳鎭模 동문 吳鎭模(61문학·본회의이사) 동문이 5월 1일 국토개발원 수석연구위원에서 同 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

吳동문은 국토건설 종합계획실장, 同행정실장, 전국부동산종합개발협회상임이사,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자문위원직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으로서 재임중이다.

## 불교교회원 총재 맡아

李外濤 동문 李外濤(50불교) 동문과 安榮根(61불교) 동문이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회원(이사장 한정식) 제10차 대의원대회에서 총재와 교정원장에 각각 추대, 지난달 12일 탐모스호텔 무궁화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李동문은 53년 모교 총무과장을 거쳐 경기대학교수, 66년경기대학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영성교육기구 사무총장 및 한국불교통신대학교에서 재임중이다. 또 安동문은 현재 영주불교교당대학장으로 재임중.

## 대한산악연맹회장에

李仁楨 동문 李仁楨(72문학·본회의이사) 동문이 최근 대한산악연맹 회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됐다.

대한산악연맹은 알파인스트림과 구조대운영 및 액셀시보誌 발간 등의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동문은 지난 88년 3월 회장으로 선임됐다. (株)대인 사단 詩協심의위원장에

李炯基 동문 李炯基(56불교·모교국문과교수) 동문은 최근 열린 한국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李동문은 「시를 통한 세계의 형제애와 평화」를 주제로 국내의 1천 2백여명의 시인이 참가하여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시인대회 집행위원의 사무총장으로 제임스이기도 하다.

## 俞相植 동문 大邱市警국장에 경찰계 간부금 同門자리 옮겨

최근 경찰고위위에서 俞相植(72재원) 동문은 비록 총경급부들이 자리를 옮겼다. 대구시경국장에 취임한 俞相植 동문은 경남 합천서장, 서울시경 제 4부장, 본부정보 1과장을 역임했으며 본부 정보 1부장 재임시에는 치안질서확립공로로 홍준근정총장을 받는다.

▲朴鍾浩(60 정치) 동문은 중앙경찰서장으로 임명. 청주 서부경찰서장, 서울울림직 조지위원

회 기획단, 평택경찰서장동역임 ▲李茂永(71 행정) 동문은 서울시경 강력과장으로, 강남경찰서장, 서울시경 외사과장동역임 ▲金炳燮(83 행정) 동문은 서울시경 민정서장동역임 단무, 최근까지 서울 중부경찰서장동역임 ▲柳楨根(84 행정) 동문은 서울시경 외사과장으로, 전보, 서울시경 외사과장, 합천경찰서장, 치안본부 외사과장동역임

# 民自黨 주요黨職 대거진출

## 黃明秀, 金東英, 崔炯佑, 具滋春등문 당무위원에



▲黃明秀  
당무위원



▲金東英  
당무위원



▲崔炯佑  
당무위원



▲具滋春  
당무위원

政界에서의 東國인맥과 역량은 현재 활약중인 동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 2달의 民自黨이 巨典로 출범한 이후 崔載九 최고위원 산입고문, 黃明秀, 金東英, 崔炯佑, 具滋春 당무위원의 중책을 비롯하여 11인의 지구당 위원장등 주요당직자로 활약하고 있는 중분들의 모습에서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崔載九 최고위원 산입고문 (52국문·본회지도) = 前공화당 부총재 (4선) 72년부터 10년간 본회회장 역임  
◇당무위원  
▲黃明秀 (53정치·본회지도

화당의원 (조선)  
▲崔炯佑 (부산선)  
▲李青圭 (65법학·본회이사) = 서서천·前민정당의원 (조선) 한국기지협회장등 언론인 출신  
▲金洪萬 (71행정) = 대전甲 前공화당의원 (조선) 재학시도 총학생회장  
▲朴泰權 (75정치·본회상무이사) = 서산·대안, 前민주당의원 (조선)  
▲梁和植 (78행정·본회이사) = 남원, 前민정당의원 (2선)  
▲李起彬 (79행정·본회부회장) = 북제주, 前민정당의원 (조선) 13代에 민주속당선  
◇정세분석위원 = 李起彬  
◇정책위부위원장 = 李青圭  
◇국책연구원부위원장 = 朴 亮 (61법학·본회부회장)  
◇사무처  
◇의원국장 = 朴正永 (67 정치·본회이사)  
▲李年綱 (74경영· )  
한편 제11대국회의원 林德奎 (60 법학·본회이사 「대통령시」 誌회장) 등은 최근경민당 산하지구당위원장으로 선정됐다.

▲金東英 (60정치·본회부회장) = 원내총무겸임, 前민주당 부총재 (4선)  
▲崔炯佑 (63정치·본회지도위원) = 前민주당 부총재 (4선)  
▲具滋春 (75대안·본회이사) = 前공화당 부총재 (조선) 내무부 장관·서울시장등 관료출신 ◇지구당위원장  
▲黃明秀 = 본양·아산  
▲朴志遠 (58경영) = 오산·화성, 前민정당의원 (조선)  
▲金東英 = 거창  
▲金榮龜 (62경영·본회부회장) = 동대문2乙, 前민정당의원 (3선)  
▲具滋春 = 달성·고령 前공

시30분 경남예식장 2층 실버홀에서 三男 화족

## 金世圭교수 별세



모교 金世圭 (72사학) 교수가 지난 3월 7일 본교 부속 포항병원에서 별세했다.

경북 영동출생인 金교수는 72년 사학과, 75년 대학원 시학과를 졸업한 뒤 84년부터 모교 인문과학대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 金亨泰등문 손지

金亨泰 (57농학) 등문이 지난 3월 14일 재직중이던 포천실교 교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다음날 자택에서 별세했다. 17일 학교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 校長인 朴壽禧 (57인하·본회이사) 등문이 고지혈과 학생들의 모금에 위로금을 전달하는 한편, 金등문의 손지와 이어따른 포항을 교육위원회에 상신했다.

▲崔鍾煥 (54경제·본회상무이사·인전투자금융전문가) = 지난 3월 5일 聘父喪, 발인 7일  
▲趙正煥 (49사학·본회상무이사·남도산입대표) = 母親喪  
▲南基一 (72경영·본회감사·삼연유 전무이사) = 母親喪 (3·23)과 父親喪 (4·28), 발인은 3월 25일과 4월 30일. 장지는충북 영동군산촌면 선영.  
▲田泓和 (69경영·본회이사·국가안전기획부) = 母親喪  
▲金文洙 (62국문·소설가) = 지난 2일 父親喪, 발인 4일 청주시순천동 905 자택  
▲崔奎 (77경영·외교안행대표·본회지도위원) = 5월 5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父親喪. 발인 9일, 장지는 경북영천

여년간 전국을 다니며 민요를 채집해온 申東문이 수많은 마술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詩로 표현한 작품 70여권이 게재되어있다. <창작과 비평刊>

## 「품안으로 날아드는 새는...」

申東문 동문 시인 洪申鎔 (70국문·수원대교수)은 최근 첫 에세이집 「품안으로 날아드는 새는잡지 않는다」를 펴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오며 느낀 자신의 내면세계와 자기확인의 편견들을 모은 82편의 수상을 <나비와 비상에 대한고상> 등 4부로 나뉘었다.

## 「행촌동의 패랭이꽃」

申相星 동문 중견소설가 申相星 (70국문·유도대교수) 등문이 세번째 창작집 「행촌동의 패랭이꽃」을 펴냈다. 89년 10월 창작집 「늑대를 기다립니다」 발간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책을 내놓는 함성찬 집필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申東문은 이번 책에서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복신의 송순천, 유도대 장은경선수등을 모델로 한 본격스포츠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유제>

## 「사랑은 흔들리는 행복입니다」

俞漢根 동문 俞漢根 (79국문·문화평론가) 등문이 처녀시집 「사랑은 흔들리는 행복입니다」를 펴냈다.

<사랑을 마감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신과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쁨을 슬픔을 가까이 하는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등 4부로 나누어진 이 시집에서 俞漢根은 이해와 낭만, 영혼과 사랑의 젊은이의 문화혼을 명상적 분위기로 변주해내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종경刊>

## 「새들은 허공에 발자국을...」

鄭慶周 동문 소설가 鄭慶周 (80국문) 등문은 최근 작품집 「새들은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를 펴냈다. 그동안 「인간방생」을 주제로 불교소설의 현대화에 앞장서서 鄭慶周 등은 이번 작품집에서 역시 불교적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불교소설을 선보인다. <종경刊>

## 榮進轉補

- <韓一은행>  
▲金善在 (69법학) = 소공동지점 부지점장  
▲鄭彥時 (66법학) = 강릉지점 개설준비위원  
<商業은행>  
▲盧萬植 (60경제·본회이사) = 신설지점장에서 서초동지점장  
▲洪性勇 (78통계) = 제의건설 금융부계장에서 영등포지점 출납계장으로  
<韓美은행>  
▲鄭東實 (73행정) = 을지로지점 신역에서 천호동지점장으로 영선  
<MBC>  
▲柳興烈 (65연영) = 드라마 담당부국장  
▲李昌植 (66사학) = 특집·행사 담당부국장  
<東亞日報>  
▲鄭宰鎰 (69사학) = 광고국 과

- 고급무차장에서 同부장으로 영선  
▲元永孝 (68경제) = 출판업 한국 출판판매부장서리로 영선  
<大明건설>  
▲서일홍 (65법학) = 공무부장  
▲최홍식 (81통계) = 경영관리실과장  
▲함영수 (90한문) = 비서실 (554) 2482  
<大明레저산업>  
▲康銀元 (72경영) = (주)大明 레저산업 분양사업부장에서 (주)大明건설 총무부장으로 전보  
▲박찬우 (89연영) = 분양사업부  
▲박장우 (90관광경영) = 上同 (557) 9311  
▲김택근 (77국문) = 평화방송 기자  
▲이대녕 (82무역) = LG애드 기획관리부장 (705) 2612

## 移轉·開業

- ▲박성남 (71사교) 동자구 흑석동 한강연계 (0)112-408 (주) 대북 부장 (588) 2521  
▲박용성 (51국문) = 강동구 신천동 17-6 미성 (4) 7-805 (4) 9) 3459  
▲박정자 (65농학) = 강남구 개치동 동원 (4) 9-102 (557) 7410  
▲박수웅 (65정치) = 성북구 길음3동 109-1 (981) 5529  
▲박삼수 (88경제) =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코메트관광회관 (주) 영업부 (737) 0121  
▲서희진 (86한문) = 구로구 신도림동 삼일연립 C-013 635 3787  
▲원경재 (83전산) = 영등포구

성북교회회장) = 지난 27일 오후 7시 간화전식 (주) 좌업식을 갖고 대표이사로 취임.  
연락처 = 송파구 석촌동 226-1 석촌 B D / 2 F (Tel. 420-7321-7)

▲金奎泰 (52경영) = 최근 (주) 世宗貿易을 설립, 사장에 취임. 연락처 = 송파구 마천동 333-200 초원아트빌라가동 102 (Tel. 448-2805)

## 結婚

▲洪鳳來 (53 法學·동양음악 (주) 대표이사·본회지도위원) = 3월 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四男형식군 화족.  
▲崔致根 (49文學·前경향신문 편집국장·本會 삼일환상) = 5월 12일 하오 3시 강남 목욕대지장 3층 특실에서 차남 崔熾군 화족  
▲孫英燮 (52政治·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총재) = 5월 15일 12

## 新기안내

### 기행시집 「길」

申庚林 동문 申庚林 (59연영·시인) 등문의 기행시집 「길」이 문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출간된 이 책에는 70년대말부터 10

##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 ▲김규래 (52연영) = 송파구 마천동 323-200 초원아트빌라 가동 102호 세종무공 사장 (448) 2805  
▲김종희 (76무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 B D 37F 신동아회계해상빌 (주) 부장 (789) 6884  
▲김용관 (63법학) = 강남구 대치동 미도 A 207-705  
▲김신중 (62행정) = 종로구 홍지동 63-14 삼광조리기가 대표 (272-7616)  
▲남규우 (63법학) = 서초구 서초동 1496-13 한영빌라 다-302  
▲문태성 (81수학) = 은평구 응암 4 동 263-103  
▲박성남 (71사교) 동자구 흑석동 한강연계 (0)112-408 (주) 대북 부장 (588) 2521  
▲박용성 (51국문) = 강동구 신천동 17-6 미성 (4) 7-805 (4) 9) 3459  
▲박정자 (65농학) = 강남구 개치동 동원 (4) 9-102 (557) 7410  
▲박수웅 (65정치) = 성북구 길음3동 109-1 (981) 5529  
▲박삼수 (88경제) =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코메트관광회관 (주) 영업부 (737) 0121  
▲서희진 (86한문) = 구로구 신도림동 삼일연립 C-013 635 3787  
▲원경재 (83전산) = 영등포구

- 여의도동 14-11 데하D1010호 오라클코리아 (780) 4665  
▲이춘설 (80농경) = 의정부시 가동 2동 723-22 (872) 1179  
▲윤진철 (88생물) = 구로구 개봉동 5-13 (613) 1810  
▲이상철 (61정치) = 관악구 봉천7동 218-35 동파이프래리점 (형제 7가) 대표 (233) 5484  
▲유옥자 (65법학) =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터 B D 1711호) 남북평화통일연구소 (755) 1853  
▲이종필 (65정치) = 이전군 이천읍 장전리 459-13 (33) 8366  
▲안중철 (75법교) = 양천구 신정1동 32-3 목동 (4) 1013-101 (647) 8435  
▲장동진 (86 경영) = 종로구 신문로 1가 25 용마B 한국보조병원 세종로지점 (723) 0031  
▲조영희 (58 경제) = 인천시 남구 관안동 19-4 (주) 대한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439) 2221  
▲정복진 (62 경제) = 성북구 장위동 68-375 (915) 3449

- ▲전경주 (49 문학) =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미주 (4) A-401 (780) 6105  
▲최창환 (81경제) = 부산시해운대구 중2동 주공 (4) 13-506 현대자동차 해운대영업소 주임 (742) 0771  
▲최환강 (55사학) = 종로구구인동 1418 신설D203호 성보실업 (주) (268) 9622  
▲허천택 (61경영) = 강남구역삼2동 개나리 (4) 3-301  
▲홍두홍 (87경영) =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연수부  
▲홍승룡 (68경제) = 송파구 풍납동 388-7 우성 (4) 2-709  
▲하민호 (85전자) = 송남 서산시 동문동 133-7 극동한신 (4) 3-504  
▲최명재 (61연영) = 은평구 불광3동 445-09  
▲정영재 (87농생) = 송파구 잠실동 198 삼정 B D 5F (주) 예성  
▲정낙교 (61법학) = 은평구 응암동 584-46

- ▲조문영 (60법학) = 종로구 홍지동 36-32  
▲전창원 (57경제) = 강남구 논현동 250-16 현대빌라 A-1  
▲장동진 (78학력) =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 (4) 6-17  
▲정창수 (85경영) = 서초구양재동 93-1  
▲전은영 (74학력) = 강남구삼성동 홍실 (2) 2-801 (546) 4100  
▲이주한 (82회계) = 중구 을지로4가 310-68 제일은행 세운지점  
▲이병일 (68정치) = 서초구반포동 235 신반포한신 2차 (4) 101-809 금성대리점 대표 (593) 4135  
▲손양찬 (49문학) = 도봉구미아3동 130-30  
▲심창설 (61법학) = 서초구서초동 1686-4  
▲손용호 (71식공) = 강서구등촌동 동선 (4) 3-406  
▲성중모 (67경영) = 종로구구수동 80 대한내보령 생명보험부장

### 한길 걷는 東國人 가족 ——李成雄 東문을 찾아



악역단골의 TV 별런트 李成雄(64 연령) 동문이 같은과 선후배 사이인 딸 旻雅(90연영) 양과 연극「어느 중년부인의 위기」에 父女사이로 함께 출연, 화제를 모으고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현대아트홀 무대에서 상연된「어느 중년부인의 위기」는 남편이 숨겨놓은 여자가 어느 날 이기를 안고 들어닥치면서 일어나는 가정파탄을 그린 연

기를 지도해준 아버지에게 대해 딸은「TV 영화에서는 악역을 주로 하지만, 집에서는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인데 이런 면모가 연극에서도 나타나고있다」고 자랑.

李동문의 둘째 딸 경아양 역시 모교 연극영화과 4학년이 재학중인 문문가족이며, 셋째 딸 향아(서울에전연극과 2)양도 연기공부를 하고 있어 4부녀가 함께 연기자의 길을 걷게됐다.

### 長女の 데뷔 무대 돕는 父情 次女 경아양도 연영과 同門

극으로 旻雅양은 어머니를 동정하기보다는 아버지(李成雄)편에 서는 딸로 출연. 모교 연극영화과 1회 졸업생인 李동문은 TBC TV 별런트 1기생으로 출발, 극단 <자유> <산울림> 창단 멤버로 「신의 대리인」 「꽃피는 체리」 등 40여편의 연극에 출연한 중견연기인.

旻雅양의 데뷔무대기도 한 이번 공연에 앞서 하루 4~5시간씩 합계 연습을 하며 자신의 연

한편 李동문의 부인인 田廣美씨 역시 65년 영화과를 졸업한 東문夫婦로 재학당시 교내에 소문났던 이른바 캠퍼스 커플.

田廣美씨와의 반대와 李·田 동문의 약혼당시 「영문과 최고의 미인을 도둑맞았다」는 영문과 남학생들의 질투와 분노(?)를 李동문은 끈질기고 배짱좋은 求愛로 딛고 결혼에 골인, 소문난 일교부부로 행복을 가졌다.

### 朝興銀行 研修院長...張都松 東문

우리 同門중에는 각계각층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이는 同門이 부쩍 많다. 지난 2월 朝興은행 연수원장으로 취임한 張都松(84經院·本會이사) 동문도 예외는 아닌듯.

張都松의 한국 금융 역사상 첫 女性부장의 탄생은 54년 조흥은행입행이후 단 36년만에 이룩한것으로 연지동지점장 시절 전국수신신장을 1위등 발군의 명업실적이 뒷받침된 것이다. 「많은 운이 따랐다」고 겸손해 바지치는 張都松의 귀에

張都松은 한국 전문직여성성클럽의 회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으로 女性社會活動運動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에서 몇사람되

자 破顔大笑. 모교의 이미지 개선은 구성주체 모두가 상호이해하는바탕위에 대화가 통해야 한다며 비로소(?) 자신감을 보이는 張都松은 中庸과 正道를 강조한다.

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늘 새롭게 노력한다는 張同門은 「현재에 좌절하지 말것과 국제화시대에 알맞은 국제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후배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바쁘름에도 간간히 산을 찾



### 세계 여성銀行家協 재 단理事로 활약 중 한국 금융사상 첫 女性部長의 탄생

는 노후가 풍요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 女性부장이라는 世間的 시각은 男性중심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꼬집는 張都松은 「원개인 혹은 한동문의 노력의 소산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지 않는 세계여성은행가協 재 단의 이사로도 맹활약중이다. 슬쩍 얘기를 모교쪽으로 돌리자. 활랑해 하는 張都松은 「원생출신이라 열성적이지 못했다」며 애써 변명(?)한다. 기자가 비록 모교의 출입문이 3곳이라도 현생중, 학부중이 따로 있는건 아니라고 하

는 등 늘 자기계발에 등진하지 않는 張都松의 모습은, 쉽게 꿈꾸고 쉽게 좌절하며 쉽게 생각하는 오늘날 젊은이에게 많은걸 암시해 주는듯하다.

금융인으로, 사회활동가로, 뛰어난게(?)시인한 우리 同門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한국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어렵거나 변할수가 없어요. 버릴수도, 버려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30년전 소련 프라우다紙 평양 지국기자로 일하던중 판문점취재를 틀러 한국에 망명, 당시 언론을 뒤집어놓았던 李東濬(67대원) 동문, 그가 미국으로 이민간지 20년만에 취업비자를 얻어 중로 파고다외국어학원의

### 前프라우다紙 平壤지국 記者 亡命기자 李東濬 東문



을피해 한국에 망명했다. 극적인 월남이후 70년 미국 이민전까지 11년동안 李東濬은 서

적하나 그들의 의식구조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채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현재 북방외교가 성공한 요인중에는 한국정부의 적극적 태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소련측이 주도권을 쥐고 도전해오는 인상이 짙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다시 미국에서 조국으로 등·서간의 장벽을 넘나든 李東濬은 지난 2월 시작한 소련어강의뿐 아니

### 북한에서 남한으로, 미국에서 조국으로 외국어학원 소련어 강사로 돌아와

소련어강사로 지난 3월 26일 귀향했다.

1930년 평북영변출신인 李東濬은 병암교원대학역사문과부에서 소련어를 전공, 졸업과 동시에 프라우다紙 평양지국 기자로 취직했으나 소위「성분」이 문제가되어 부모와 친척이 속칭량하고 자신마저 위협에 처하여 59년 판문점회담때 북한경비병의 눈

을신문정치부기자, 외국어대 소련어강사등으로 활약하며 모교와의 인연을 맺어 67년 「소련 정치제도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치학석사학위를 받았으나,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당시의 국내 정국에 떠밀려 박사과정을 채 못마친 채 70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라 소련을 올바로 전달하고, 나아가 북방외교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는것이 작은 바람이다.

「생명을 걸고 판문점을 넘어온 목적이 이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통일되어 북한을 꼭 방문하는것이 마지막 남은 소원입니다」

【소련과의 교류확대는 바람

### 채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 卍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운영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푸랑BD 510호

###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랑빌딩 3층 42호

會費·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PPI리서치

정치광고·여론조사

所長 鄭性烈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2가 65-19  
(우진 B/D305-306호)

TEL: 393-7585~7  
FAX: 393-7587

# 開校84돌 우뚝선 民族東國

## 8일 중강당서 記念式, 장기근속 64명 표창

모교 개교84주년기념식이 오늘(8일)오전11시 申國柱총장장리를 비롯한 동문,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로 시작하여 정각원장 李法山(선학)스님의 발원분불독, 朴瑞浩(행정학)기획조정실장의 학교연혁보고, 장기근속자 공로패 수여, 총장기법사, 吳絳園이사장고사,

鄭在哲총동창회장축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식후에는 동국관 5층 로비에서 자축연을 갖는다.

이날 공로패수상 장기근속자는 다음과 같다.

◇30년근속=▲鄭允武(행정, 58대원)▲安惠明(정보관리, 59경계)

◇20년근속=▲金鎭貞(철학, 59학원)▲金福善(영문, 58대원)▲金在功(전기공)▲申鉉昭(화학,

61화학)▲李麗圭(산공)▲金興培(농학, 57농학)▲金洪哲(농경제,

## 朴桂山동문 장학금 3천만원

### 고시 장학생위해 기탁, 기금확대 약속



을 내놓았다. 李淳容법대학장, 韓瑞熙고시만 지도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30일 계산고시학사에서 열린 '90년도 고시장학생간

담회'에 참석한 차동문은 『장학금 3천만원의 은혜를 직접, 그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현원 닿는대로 기금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동문은 박성열(85법학), 권오복(88행정) 등본 2명에게 장학금으로 금 일봉을 전달했다.

현재(株)계산산업 대표이사로서 재직중인 차동문은 지난 84년 모교에 桂山고시학사를 지어 기증했으며, 그동안 후진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東大新聞 창간 40周年 맞아

### 10일 기념리셉션...엠배서더그랜드볼룸

모교의 동대신문이 올해로 창간40주년을 맞았다.

1947년 필자로 배포조차 되지 못한 東國月報을 호시로 1950년 4월15일당시 총학생회장 이던 申國柱(현재 모교총장서리) 동문을 비롯, 朴來春, 李鍾翰등「신문동호인」들이 東國新聞 창간호를 발행한이래 東國

時報, 동국시보등의 제호변경을 거쳐 1962년부터 현재의 제호로 발행되어 온 東大新聞은 89년 3월1일자로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 현재 1,046號를 발행하고 있다. 한편 「東大新聞」 창간40주년기념 리셉션이 오는 10일 엠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오후 6시30분열린다.

## 4.19기념 東國人 登山大會

### 지난달 20일 열려...地教科 최우수상

4.19기념 「제2회 동국인 독산대회」가 지난4월20일 재학생및 동문 2백80명 1천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등산대회에 앞서 참가자 전원은 오전10시 수유리 4.19 기념탑앞에서 기념식을 가진뒤 본교출신 노회두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 4.19기념탑을 출발→대동문→래고사터→도선사에 이르는 코스에 걸쳐 진행된 이날 등산대회의 최우수상팀 특별상은 모두 지리교육과팀이 차지했다.

한편 경주팬퍼스 4.19기념 「제1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갈

은날 오전9시부터 경주남산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1백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경쟁과 9명 최종합격

모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및 졸업생 9명이 제39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지난달 6일 치안본부에서 발표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석청호(4년) ▲최관호(〃) ▲박영진(〃) ▲김소년(〃) ▲김기태(89초) ▲김상진(89초) ▲안선연(〃) ▲이선근(〃) ▲이강원(85후)

## 모교소식

### 졸업생취업률 69.7% 前年比 5.6% 감소

모교의 89학년도졸업생 취업률이 전년의 75.3%보다 5.6% 감소한 69.7%로 집계됐다. 학생처집계에 따르면 지난2월25일까지 전체졸업자 2천2백76명중 1천5백87명이 취업하였고, 이중 대학원진학(1백40명)과 군입대(1백73명), 고시준비(14명)를 제외한 취업률은 55.1%로 작년보다 8.7% 감소했다.

순수취업의 업종별분포는 일반기취업이 가장 많은 6백73명이며, 금융중 2백56명, 공무원고 피직 각각 78명, 기타 1백25명등으로 나타났다. 단대별 취업률은 법과대가 8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공과대로 84%, 사회과대학 83.9%, 경상대 82.8% 순이며 사범대가 41.7%로 가장 저조했다.

또 성별취업률은 남학생이 졸업생 1천2백50명중 78.6%인 1천2백97명, 여학생은 졸업생 5백76명중 49.7%인 2백90명이 취업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경주팬퍼스 3.8% 증가한 57.6%로 집계됐다.

학생과 집계에서 따르면 총졸업자 1천2백58명(男 9백93명, 女 2백65명)중 순수취업률은 지난해 45.2%보다 1.4%증가한 46.6%로, 단대별 취업률은 인문대 52.9%, 자연대 58.2% '법과대 53.3% 상경대 54.8%, 한의대 9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 61.2%, 여자 44.2%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방정책과 불교세미나 佛文硏究회로 동국판서 열려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가「북방정책시대의 불교」를 주제로 지난달25일 불교문화연구원(원장=蔡濤澤) 주최로 동국관(L101)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뵐병천(행정학) 교수의 「동구권변화와 북방정책전망」申法院(在美L.A.사카무리아카데미원장)스님의 「불인에 대한 남북간의 불교교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제22대 總學, 권오철·이진한군

### 임원진확정... 4월 17일 출범식



### ▲權총학생회장 ▲李부학생회장

모교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권오철(화학 4)·이진한(경영 4) 등이 당선됐다.

지난 3월28·29일 양일 실시된 선거결과 총유권자 9천4백74명중 6천9백68명이 투표(투표율 73.55%), 이중 4천54표(58.18%)를 획득한 권-이 조합이 유권(국문 4)·이진선(야간부역 4) 조를 총학생기래 최다 득표자인 1천3백77표차로 승리 당선됐다.

한편 제6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은 단독입후보한 김윤향(선학 4)·권미경(국민윤리 4)

양이 총유권자 2천4백13명중 1천6백86명(69.87%)이 투표, 1천4백34명(85.05%)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제22대 총학생회 및 제6대 총여학생회 출범식」이 지난 4월17일 학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려 총학생회장 권오철군은 『사업의 대중화와 공개화로 민주적 학생회건설』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22대 총학생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총무부장=임기범(법학 4) △학술부장=박상우(정의 4) △문화부장=박성조(경영 3) △사회부장=김성규(정의 4) △연대사업부장=전필원(야간·산업공 4) △기획부장=한중서(전기공 4) △학자후원위원장=박정규(국문 4) △학생복지위원장=김종우(야간·회계 3) △중앙교과위원회=박재원(야간·경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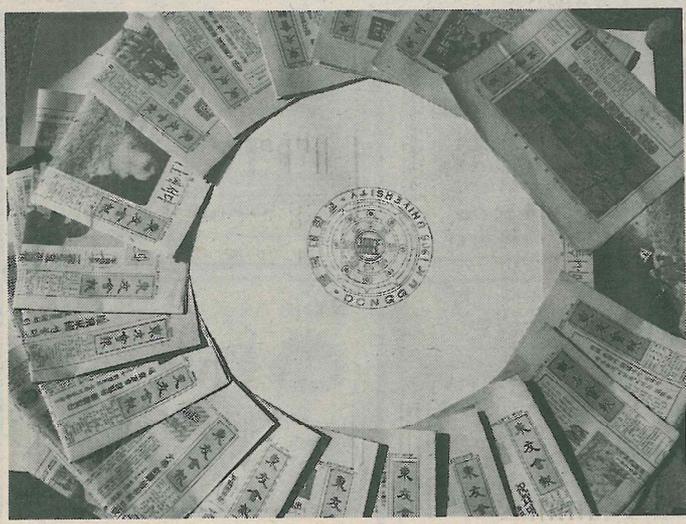
## 李昌培동문 정년문집 봉정식

### 李秉東 교수 화갑 논집 헌증

李昌培(52영문·모교교수) 동문의 정년퇴임문집봉정식이 지난 3월3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었다.

54년 모교 영문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교무처장, 사대학장등을 거쳐 최근까지 대학원장으로 35년 10개월간 봉직해온 李 동문의 학문업적과 후진양성의 업적을 기리는 후학들이 감사의情으로 헌증한 자리였다. 李秉東모교교수의 화갑기념은

집봉정및 출판기념회가 지난 3월17일 교통회관 파노라마홀에서 있었다. 회갑을 기념하여 同學 및 제자들이 집필한 「세마를 운동과 국가발전」이란 기념논문봉정식과 저서 「농촌개발전략연구」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이날 모임은 모교에서 30여년간 농업경제학과교수로 재직해온 李 교수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 東友會報 廣告접수

“동국가족의 廣告協贊을 바랍니다.”

본회는 「東友會報」에 실을 동문기업의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력145호로 창간4주년을 맞은 東友會報는 그간 8만 동국인의 가교로서 동국인의 대변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東友會報」와 함께 영연하 기록되고 최고의 효과를 거둘수있는 여러분의 협찬광고를 기대합니다.

「東友會報」발행에 적극적인 성원있으시길 기대합니다.

◇接受期間: 매월25일限

◇接受및問議處: 본회사무국 전화 733-3991~3

東國大學校總同窓會

